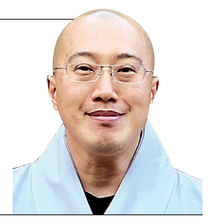
| 현불 논단 |

부처로 사는 한해 되길



법장 스님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새해 맞아 해인사 학인 스님들
팔만대장경 인경 울력에 '총력'

올핸 '대승기신론소기회본' 인경
국민들의 대승적삶 성취 기원해

평범한 우리의 일심이 부처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때
일상 평안해지고 행복 다가올 것

신축년 새해가 밝아오며 해인사에서는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새롭게 팔만대장경을 인경하는 울력을 하고 있다. 해인사는 고려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총림이다. 그런 해인사의 교육기관인 해인사승가대학(舊 해인강원)에는 오랜 전통으로 '한문불전강독' 의 수업에 사용하는 경전이나 논서를 학인 스님들이 직접 인경해 책을 만들어 교학을 익힌다. 시중에 나온 보기 편한 현대식 책이나 해설서도 얼마든지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하여 책을 만들고 그 가르침을 익혀 가슴에 담아 평생의 수행으로 삼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원효 스님께서 대승기신론을 주석하신 〈대승기신론소기회본(大乘起信論疏記會本)〉을 인경하고 있다. 이 주석서는 '대승의 신심을 일으키게 한다' 는 대승기신론에 대해 원효 스님이 본인의 수행과 교학의 철학을 담아 주석한 것이다.

원효 스님은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자이며, 수행을 실천으로 회향하신 성자이다. 그런 원효 스님이 대승의 신심을 어떻게 일으키고, 그것을 수행으로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직설이 담겨져 있기에, 인경에 참여하는 학인스님들의 마음가짐과 손길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리고 이러한 스님들의 간절함은 단순히 인경을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대승기신론〉의 가르침과 원효 스님의 수행실천이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지쳐버린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져 보다 대승적 삶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서원이기도 한 것이다.

지난해 발생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서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도 처음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다른 나라만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무심히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우리 눈앞의 고통스런 현실로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너와 나, 어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저 함께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즉,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평등한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의지처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중생의 눈에만 중생과 부처의 구별이 있을 뿐이고, 깨달은 부처의 눈에는 부처라고 할 것도 중생이라 할 것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대승' 이라고 하는 것도 〈법화경〉에서 일승으로 귀결되어, 대소승 모두가 흰 소의 수레(백우거)를 타고 함께 열반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에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모든 일을 함께 겪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공업중생(共業衆生)' 이라고 하는 것이다.

올해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하여 더욱 의미가 특별하다. 〈대승기신론〉의 가르침과 같이 모두가 한 명 한 명의 부처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일상에서 우리는 이전과 같이 나와 남을 구별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흰 소의 수레에 올라타 대승적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일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대승기신론〉을 한 장 한 장 인경하는 스님들의 손길과 마음 속에는 그러한 우리의 대승적 삶의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서원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서원은 1400년의 시간을 초월한 원효 스님의 서원이기도 한 것이다. 평범한 우리의 일심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그러한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평안해지고 행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삐릿 의식'을 아시나요
〈pirit〉

스리랑카에는 경전을 독송하는 피릿 의식이 있습니다. 이사할 때나 생일날 등, 축복받는 일이 있을 때 또한 두려움이나 쉽게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의식을 행하지요. 그중에서 마하피릿(mahāpirit) 의식은 유명하고도 특별한 의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찰, 집, 가게, 회사 등 어떤 곳에서든지 한 번쯤 하게 되는 의식입니다. 올 1월 1일 아산 마하위하라사원에서도 새해를 맞이하는 삐릿의식을 준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행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삐릿 의식은 한국불교로 보면 일종의 장엄염불입니다. 저녁 9시경에 시작해 다음날 아침 6시에 끝나는데, 독송과 정진, 설법을 듣는 모습으로 밤샘법회를 합니다. 보통 삐릿 의식을 위하여 '빠릿따 만닷빠(Paritta Mandappha, 法樓)' 라는 임시 건물을 세워서 의식에 이용하는데 건축자재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뭇잎, 종이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비 낭비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스님들은 종파 차이 없이 함께 법회를 진행하며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흰옷을 입습니다. 이는 한국의 제사나 성도재와 같은 의식 때 종단 상관없이 함께하는 것과 유사하지요.

이 의식에 독송되는 빠릿따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늘 마음에 새기고 외우며 삶의 도움이 되는 문장을 경에서 엄선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모아 만든 독송용 빠알리어 책도 있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패엽경' 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현재는 종이로 만든 책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책이 빠알리어로 빠리와하나(Parivahana), 싱할라어로 피루와하나(piruvahana)이며 '암송' 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1장에 빠알리어 글자가 8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마하삐릿 의식 때는 총 3만2000개 글자를 독송하는 셈입니다. 이 자뚜바나와라는 기원전 3세기에 남방불교의 최초의 사찰이자 종파인 대사파에서 스님들의 교육 전용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5세기쯤에 삐릿 의식으로 거행됐고, 후기에 몇 개의 진언이 추가됐습니다.

삐릿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스님들과 재가자들은 '삐릿 후야(pirit huya)' 라는 실(絲)을 잡고 의식에 참여했다가, 의식이 끝난 후 짧게 잘라서 오른팔에 감고 다니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몸을 보호하고 하는 일이 잘풀리며 결국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의식은 한국의 법회에서 오색실을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식에 사용하는 실은 하얀색인데, 하얀 실은 빨리 때가 타고 짧은 시간 안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색을 통해 무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삐릿 의식이 한국의 '밤재(철야법회)' 와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사찰에서 성도재일에 철야기도를 하지요. 한국의 불교에서 제를 지내는 의식이 하나의 문화로 유행한 것처럼 스리랑카와 같은 남방국가에서는 삐릿 독송을 일상 생활화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경전 독송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올해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한국 불자님들이 마하위하라 사원을 방문해 삐릿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길 발원해 봅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용미리 채석단지 지정 불가하다

㈜삼표산업이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인근 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7년만에 재추진되는 삼표산업의 채석단지는 지난번보다 대폭 면적을 늘려 파주시가 아닌 산림청에 지정을 신청했다. 이유는 30만㎡ 이상의 채석단지 지정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이다.

삼표산업이 파주시를 통해 공람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회사 측이 추가로 지정하려는 채석장 예상 구획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과의 이격 거리는 260m로 영향 예상 이격 거리 500m보다도 가깝다.

발파 등을 통해 산을 깎아 돌을 캐는 채석장이 용미리 마애이불석불입상 인근에 들어설 경우 해당 문화재가 받는 피해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에도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인근에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했지만, 문화재청과 파주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2014년 문화재청이 실시한 문화재특별점검에서 'E등급' 을 받았으며,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문화재 안정성을 고려해 삼표산업의 채석단지를 부결했다.

현재 조계종과 지역불교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인근 채석단지 지정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돼 온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환경이 전부 파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삼표산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주민설명회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삼표산업은 불교계와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전에 현재의 채석단지 재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바란다. 그것이 이 시대의 기업이 해야 할 상생의 정신이다.

국토부, 해인사역 건립 재조사해야

국토부가 추진 중인 남부내륙고속철도에 '해인사역' 을 배제하고 합천읍에 역사를 건립키로 하면서, 해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전면 재조사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해인사역 건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인사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님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해인사와 지역사암, 주민들로 구성된 해인사역사주민추진위원회는 국토부가 해인사역을 배제한 채 추진 중인 노선(초안)은 국토균형발전과 경제성, 국민편의 등 철도건설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합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상당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인사와 가야산국립공원 방문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부인구 유입 및 효용성 측면에서도 야로면 일대에 해인사역이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초안에서 계획된 합천읍 위치의 역사는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수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 지점에서 국토부는 경전선의 함안역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함안역은 마산~진주 노선의 중간에 설치된 역사다. 혁신도시를 감안해 기존계획에서 추가로 건립됐지만 결과적으로 수요저조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 가장 합리적이고 위험부담이 적은 지역에 설치해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토부가 철도건설의 기본취지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해인사와 지역주민의 재조사 · 재검토 요구를 수용해 가장 합리적인 곳에 해인사역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